

“일그러진 얼굴로 70평생을 홀로 살았습니다.”

- 17살 때 큰 화재로 인한 화상으로 외부와 단절된 삶을 살고 있는 이원철(가명) 어르신 이야기 -

이원철(가명) 어르신은 고등학교 시절 당한 큰 화재로 얼굴과 온 몸에 화상 흉터가 남았습니다. 화재는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어르신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화상으로 변해버린 얼굴을 드러내기 싫어 집 밖을 나서지 못하고, 사람들이 일그러진 얼굴을 보고 피하는 것 같아 고통스러웠습니다.

화상으로 결혼도 하지 못하고 직장도 다닐 수 없어 친척 식당에서 일을 도우며 근근이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마음의 상처로 몇 차례 자살시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어르신 곁을 떠나지 않는 부모와 형제들 때문이었습니다.

화상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항상 두려웠지만 좋은 이웃들을 만나 최근에는 경로당에도 나가고 사람들을 만나 어울리기 시작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고 계십니다.

이제 겨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가고 있는 어르신이 다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따뜻한 응원과 후원이 필요합니다.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원철님의 생계비로 지원되며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저소득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용됩니다.

후원문의 : ☎ 02-3396-1004